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

【오늘의 메시지】	
찬송하기	우리는 정보가 넘쳐나고 소음이 가득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통해 들려오는 세상의 소식들, 직장에서의 요구, TV와 인터넷의 수많은 목소리는 정작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을 가로막습니다. 영적인 귀가 어두워지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보다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불안해하기 쉽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무엘 시대 역시 "여호와와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영적 어둠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어둠 속에서도 한 아이, 사무엘을 향해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셨습니다.
기도하기	어린 사무엘은 한밤중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스승인 엘리 제사장의 목소리로 착각했습니다. 세 번이나 엘리에게 달려갔던 사무엘의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사람의 말이나 환경의 우연으로 오해하는 우리네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하나님의 '인내'입니다. 사무엘이 깨닫지 못했음에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네 번째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한 번에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가 들을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부르시는 수고를 더하십니다. 엘리 제사장은 비록 영적으로 둔감해져 있었으나 사무엘에게 올바른 응답의 태도를 가르쳐 줍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들겠습니다."
성경읽기	가족이 함께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우리 가정의 영적 온도계는 어디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가족 구성원 간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누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걱정만이 가득합니까? 사무엘처럼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정을 향해,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향해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은 거창한 사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정직하라", "나를 신뢰하라"는 세미한 음성일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 가족 모두가 잠시 세상의 소리를 끄고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들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침묵의 시간을 가져봅시다.
함께 기도하기	사무엘의 응답 이후, 성경은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하는 자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 가정이 주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 가정의 모든 아들과 혼란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복된 자리가 될 것입니다.
주기도문	【본문 나누기】 가족 구성원이 오늘의 본문 중에서 느낀 것을 자유롭게 나누도록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리는 천국』

【오늘의 메시지】	
찬송하기	세상은 행복의 조건으로 '플러스(+)'를 이야기합니다. 더 많은 재산, 더 높은 지위, 더 뛰어난 재능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가르침인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정작 '마이너스(-)'의 행복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팔복의 첫 문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라는 말씀으로 여셨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이 역설적인 선언 속에 우리 가정이 누려야 할 참된 평안과 천국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기도하기	여기서 '가난함(Ptochos)'은 단순히 돈이 조금 부족한 상태가 아닙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생존할 수 없어 타인의 도움만을 간절히 바라는 '절대적 빈곤'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는 단 한 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라고 철저하게 고백하는 영적 갈망입니다. 내 안에 내 생각, 내 고집, 내 능력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들어오실 자리가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다고 착각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게 됩니다. 천국은 내가 무엇을 이루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내 마음의 주인 자리를 비우고 하나님께 내어드린 자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성경읽기	한 주 동안 우리 가족의 대화 주제를 돌아봅시다. 혹시 "누가 더 잘했나", "누가 더 옳으냐"를 따지는 교만함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남을 탓하기보다 나의 부족함을 먼저 봅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 생길 때 "내가 다 옳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가난한 마음을 가집니다. 자녀들에게는 세상의 성공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겸손이 가장 큰 실력임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물질적으로는 풍요롭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날마다 "주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영적 거지의 심정을 유지할 때 우리 집은 이미 천국이 됩니다.
오늘의 메시지	마음을 비우는 것은 허무해지는 과정이 아닙니다. 내 안의 오물과 쓰레기 같은 욕심을 비워낼 때, 그 자리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채워집니다. 이번 8월 한 달, 우리 가족 모두가 자기 의(義)를 내려놓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심령이 가난해진 우리 가정을 향해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라고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 나누기	【본문 나누기】 가족 구성원이 오늘의 본문 중에서 느낀 것을 자유롭게 나누도록 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한 주간 함께 기도할 기도제목을 정하고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본문 나누기】 가족 구성원이 오늘의 본문 중에서 느낀 것을 자유롭게 나누도록 합니다.

『눈 앞의 화려함보다 영원한 가치를 선택하라』

【오늘의 메시지】	
찬송하기	여름 휴가철, 바다낚시를 즐기는 사람들은 화려한 '가짜 미끼(루어)'를 사용합니다. 물고기는 그 화려한 색깔과 움직임에 현혹되어 그것이 낚카로운 바늘이라는 사실을 잊은 채 덥석 물고 맙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비슷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시각적인 욕망을 자극하는 세상의 화려한 미끼들을 던집니다. "이것만 가지면 행복할 거야", "이 길로 가면 성공할 거야"라는 유혹 앞에서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잃고 헛과 같은 잘못된 선택을 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기도하기	아브라함과 롯의 가족이 많아지자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양보합니다. 롯이 눈을 들어 바라본 소돔 땅은 "여호와와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고 성경은 묘사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물이 풍부하고 경제적으로 번영한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곧바로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는 비극적인 반전을 기록합니다. 롯은 땅의 '외형'만 보았을 뿐 그 땅의 '영적 상태'는 보지 못했습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눈앞의 좋은 땅을 양보하고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보이지 않는 축복을 신뢰했습니다. 결국 롯의 선택은 멸망으로 끝났고, 아브라함의 양보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으로 이어졌습니다.
성경읽기	가정에서 종대한 결정을 내릴 때, 우리 가족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연봉이 높은 직장, 학군이 좋은 지역, 남들에게 보기에 번듯한 살만을 좇고 있지는 않습니까? 롯이 선택한 소돔은 겉보기엔 화려했으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우리 가정이 거할 곳, 우리가 꿈꾸는 미래는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세상의 화려한 성공이라는 가짜 미끼에 속지 말고, 비록 광야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계신 곳을 선택하는 용기를 가르칩시다. 당장 눈앞의 이익보다 영원한 가치인 신앙을 우선시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광활한 축복을 우리 가정에도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의 메시지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롯의 눈에는 풍요로운 소돔이 보였지만, 아브라함의 눈에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이번 한 주, 가짜 미끼와 같은 세상의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눈을 감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갑시다. 겉모습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선택하는 우리 가정이 될 때, 소돔의 멸망 중에도 아브라함을 생각하자 롯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의 모든 위기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본문 나누기	【본문 나누기】 가족 구성원이 오늘의 본문 중에서 느낀 것을 자유롭게 나누도록 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한 주간 함께 기도할 기도제목을 정하고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본문 나누기】 가족 구성원이 오늘의 본문 중에서 느낀 것을 자유롭게 나누도록 합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잡는 믿음』

【오늘의 메시지】

찬송하기

찬송가 94장

찬양은 가정에서 자유롭게 정해도 좋습니다.

기도하기

가족 중의 한 사람이 기도합니다.

성경읽기

가족이 함께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가족들이 함께 나누어 읽습니다.

본문 나누기

각자 묵상한 내용을 나눕니다.

함께 기도하기

한 주간 함께 기도할 기도제목을 정하고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성과가 나지 않고, 돈을 벌어도 예상치 못한 지출로 손실간에 사라지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산 것 같은데 마음은 늘 공허하고 허덕입니다. 성경은 이런 상태를 '구멍 뚫린 전대'에 돈을 넣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학개 선지자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포로에서 돌아와 자신의 삶을 일구느라 분주했지만, 이상하게도 수확은 적었고 배부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능력의 부족이 아니라 '우선순위의 혼란'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는 사명을 잊은 채 "아직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고 핑계를 대며 자기 집을 꾸미는 데만 몰두했습니다. 그들은 '편백한 집', 즉 나무판자로 화려하게 장식한 집을 짓고 살면서도 하나님의 전이 황폐한 것에는 무관심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고 강력하게 권고하십니다. 하나님을 삶의 주변부로 밀어내고 내 욕망과 안락을 중심에 둔 삶은, 하나님이 불어 버리시면(학1:9) 아무런 흔적도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은, 이제는 자신의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라는 요청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의 '황폐한 성전'은 무엇입니까? 형식적으로 변해버린 가정예배, 멈춰버린 기도,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득 찬 자녀 교육의 현상이 바로 우리가 수리해야 할 성전입니다. 우리는 자녀의 성적이나 재테크 정보에는 열을 올리면서도, 정작 가족의 영적 상태에는 "나중에 여유 생기면 하겠다"고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구멍 뚫린 전대를 막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다시 삶의 1순위로 모시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 가정에 하나님을 위해 떼어놓는 시간과 정성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구멍 난 삶의 영역들을 친히 메워주시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집을 짓고 사는 것을 반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보다 그 집을 더 사랑하여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을 경계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무너진 영적 성전을 다시 세울 때 하나님은 우리 삶에 풍성한 수확과 진전한 민족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가정은, 하나님께서도 그 가정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며 모든 필요를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가족 구성원이 오늘의 본문 중에서 느낀 것을 자유롭게 나누도록 합니다.

『서로 용서함으로 완성되는 가정과 천국』

【오늘의 메시지】

찬송하기

찬송가 298장

찬양은 가정에서 자유롭게 정해도 좋습니다.

기도하기

가족 중의 한 사람이 기도합니다.

성경읽기

가족이 함께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가족들이 함께 나누어 읽습니다.

본문 나누기

각자 묵상한 내용을 나눕니다.

함께 기도하기

한 주간 함께 기도할 기도제목을 정하고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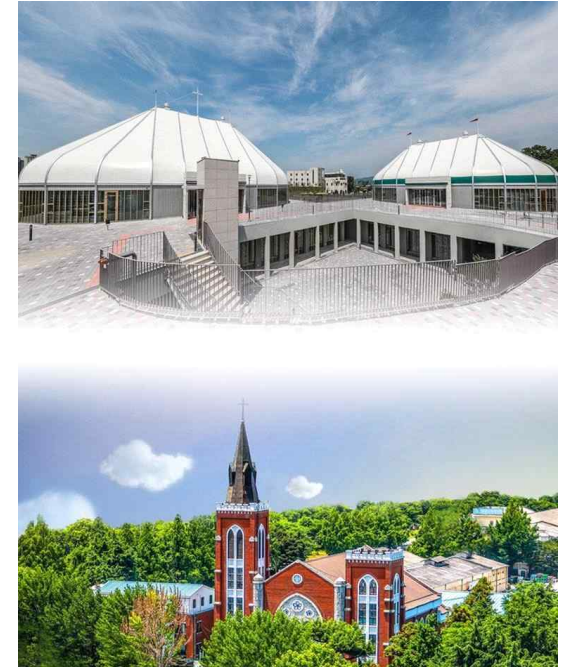
8월의 마지막 주일, 우리는 신앙의 가장 높은 봉우리 중 하나인 '용서'에 대해 묵상합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으면 우리 마음에는 쓴 뿌리가 생깁니다. 그 미움은 마치 독과 같아서 상대를 해치기 전에 먼저 나의 영혼을 갇아먹고 삶의 에너지를 소멸시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건너야 할 다리를 스스로 파괴하는 자와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가장 사랑해야 할 가족 사이에서 생기는 서운함과 분노는 가정의 평화를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권면합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용서의 '기준'입니다. 나의 기분이나 상대의 사과 여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단 달란트 빚진 자처럼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탕감받은 존재들입니다. 그 엄청난 용서를 경험한 자만이 다른 사람의 백 데나리온 빚(작은 잘못)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용서는 상대가 자격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가족은 세상에서 가장 가깝기에 가장 큰 상처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쌓인 오해나 부모 자식 간의 갈등, 부부간의 해묵은 감정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화해의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 선택'입니다. "내 마음은 아직 힘들지만,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기에 나도 용서하기로 결정합니다"라고 선포하십시오. 오늘 예배 후, 가족 중 누군가에게 미안한 마음이나 서운한 마음이 있었다면 먼저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내가 그때 미안했어", "그럴 수도 있었을 텐데 내가 이해가 부족했어"라는 한마디가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여는 기적이 됩니다. 용서가 흐르는 가정에는 사단이 통할 수 없습니다.

용서는 과거의 잘못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이 나의 미래를 지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승리입니다. 미움에 묶여 있으면 우리 가정의 미래는 과거의 상처에 갇혀버립니다. 그러나 용서하면 운명을 정복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행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8월을 마무리하며 우리 가정이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용납하는 공동체가 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심 같이 우리도 서로를 품어줄 때, 우리 가정은 세상 그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깊은 평안과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가족 구성원이 오늘의 본문 중에서 느낀 것을 자유롭게 나누도록 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림교회**

위임목사 최 용 희

임동 예배당 : 광주광역시 북구 경양로 7 T.525-5252 F.525-5260
수완 예배당 :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길 303 T.525-0303 F.525-0301